



코로나 확진자 자가치료 본격 운영되나

입원·입소 없이 재택 격리... 26일 기준 5명 자가치료 무증상·경증 소아와 돌봄 가족 있을 경우 제한적 허용

제주지역에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 머물며 치료하는 코로나19 자가치료가 일부 이뤄지면서 추후 본격 운영될 지 주목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5명이 현재 자가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에선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최근 1주간 1일 평균 확진자수가 37.43명을 나타내는 등 여전히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또 이날 기준 도내 격리 중인 환자가 처음으로 400명을 넘어선 데다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도 방역당국은 지난주 브리핑을 통해 시범적으로 자가치료를

운영하고,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으면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르면 △임상적 위험도가 낮은 만 12세 이하 무증상·경증 등 소아 확진자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 확진자 △그 외 불가피한 사정으로 확진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자가치료를 허용하고 있다.

자가치료자는 1일 2회 발열 및 산소포화도를 체크하고 비대면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자가치료 도중 이상반응이 확인되면 감염

병전담병원 등 병원으로 이송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병상 배정이 이뤄진다.

또 지자체는 자가치료 대상자의 관리를 위한 의료진을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며 모니터링 등 총괄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는 무증상·경증의 성인 확진자를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자가치료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날 기준 수도권에선 42명이 자가치료 대상으로 분류됐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23일 의료진과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코로나19 자가치료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 제주에선 5명의 확진자가 보건소로부터 건강관리를 받으며 자가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소아 확진자 등 돌봄이 필요한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한 일반 확진자 대상 자가치료 지침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시범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병상 확보와는 별개로 제주도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자가치료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는 모든 시도에서 시범운영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청에서 일반 확진자의 자가치료 관련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될 경우 중증 환자 중심으로만 병·의원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자가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연결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제주소방, '벌초사고 주의보' 발령

3년간 102건 발생·2명 사망

제주소방 '벌초 시기'가 찾아오면서 소방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27일부터 '벌초시기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소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벌초 안전사고는 102건이며, 이중 2명(심정지 2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으로 보면 기계적 요인에 따른 사고가 45건(44.1%)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등 신체적 요인이

38건(37.3%)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사고의 70% 이상이 8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에 의한 부상 부위는 발 77.1%, 팔 10.4% 등이었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예초기 작업 전에는 반드시 예초기 칼날의 볼트 등 잠금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화와 보호복, 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 후 작업해야 한다"며 "작업 중에는 15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톱날이 튕기지 않도록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풀을 베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몰래 부모 분묘 개장·화장 50대 징역형

가족의 동의 없이 부모의 묘지를 개장해 화장한 50대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재산 분배 문제로 친형과 불화가 있었고, 부모가 묻힌 분묘를 친형이 제대

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친형의 동의 없이 부모묘의 분묘 2기를 개장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유골을 꺼내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종교적·관습적 양속에 반해 함부로 행해진 발굴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26일 제주소방교육대에서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2021 전도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진행된 가운데 대회에 참가한 서귀포소방서 대원들이 가상의 화재 진압을 위해 분주히 달려 가고 있다. 강희만기자

오늘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여부 발표

어제 하루 22명 코로나 확진... 격리중 확진자 속출 집단감염 불씨 여전... 노래연습장 관련 누적 98명

제주지역에서 자가격리 도중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하루 새 코로나19 확진자 22명이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5시까지 22명(2525-2546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546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들어선 794명이 확진됐으며 최근 일주일 사이 228명이 확진됐다. 또 최근 1주간 1일 확진자 수는 32.57명으로 전날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인 27명을 월등히 상회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

방자치단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를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이날 신규 확진자 22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12명, 타지역 입도객 1명, 코로나19 유증상자 9명 등이다.

다만 이날 확진자 가운데 자가격리 도중 집단감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 9명이 포함됐다.

우선 집단감염의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이날 '제주시 노래연습장' 확진자 1명이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98명으로 늘었다. 이마트 신제주점 연관 확진자 2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가 24명으로 늘었으며 '제주시 학원2'에서도 1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58명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에선 이날 들어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시작된 돌과 감염, 10~20대 포래집단 사적모임에 의한 연쇄감염이 급증하면서 여름철 방역 위기감이 고조되자 지난 18일 0시부터 단계 최고 수위인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엔 제주시 학원·노래연습장에 이어 이용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대형마트에서 확진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4단계 적용 마감 기한을 앞두고 이날 단계 조정 회의 를 열고 핵심 지표인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와 기준 초과 일수, 보조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와 증증화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및 병상 여력수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러 방역 요소가 있지만 최근 제주지역 확진 추이로 볼 때 2주 연장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며 "단계 조정 결과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미늘·더덕, 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핵심 성분

토양의 pH를 맞추는 역할, 양분용량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영양분 흡수를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킨,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릭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약소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서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 Tel: 745-8900, HP: 010-9258-7508

만감류 매달기! 다인 굴고리

굴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굴고리 작업세트

미리 걸어두고 편하게 매달자!

- 한 번만 먼저 설치하면, 이후엔 던지기 생략가능
- 높은 효율! 굴고리 한 개에 15개 이상 매달기 가능
- 미리 작업! 매달기작업 시즌 전에 미리 던져 놓을 수 있음
- 편리한 수거! 수확 후 유인끈을 간단히 수거 가능

굴고리 사용 방법

'안파고'드는 유인줄 '안파고'

- + 굴, 단감, 대추, 사과, 체리, 복숭아, 자두, 배, 호두 등 모든 과수나무의 처진 가지, 늘어진 가지 해결!
- + 원터치&초간편 길이 조절.
- + 가지에 걸고 고정판에 끼우면 작업 끝.

안파고 소 110호(1m), 115호(1.5m)
안파고 대 210호(1m), 215호(1.5m)

가치, 까마귀, 새 쫓을 때! - 다인독수리연

4m 줄대 세트 (대형연, 소형연)
7m 줄대 세트 (대형연)

질긴 천, 강한 부품 비스듬히 다르다

굴고리, 유인줄, 유인줄, 이클립 기타 영농자재

DA IN 다인산업(주) | 경부 예천군 보문면 신단길 14-28 | 상담 및 문의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설(가립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